梅軒 李埜의 『燕行日記』 고찰

김 미 선*

〈차 례〉

- I. 머리말
- II. 매헌 이성과 『연행일기』
- III. 매헌 『연행일기』의 내용적 특징
 - 1. 청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세 제시
 - 2. 병자호란 후 포로의 상황 서술
 - 3. 喪을 치르는 과정 서술
- IV. 맺음말

I. 머리말

燕行錄¹⁾은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이다. 중국에 사신을 보낸 일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冬至使, 聖節使, 奏請使 등의 이름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공적으로 연행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제출한 것 외에, 사신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것을 朝天錄, 청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것을 燕行錄이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것 중 燕行錄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중국을 다녀온 사신의 기록을 통칭하여 연행록이라 한다. 필자도 후자의 것을 따르고 있다.

들은 중국 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일기·시·가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연행록이다. 따라서 연행록은 당시 중국의 경제·역사·문화 등을 담고 있어서 역사학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담은 기행 문학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梅軒 李埈의 『燕行日記』²⁾는 이러한 연행록 중 일기체로 기록된 것이다. 1648년에는 3월과 이성이 참여했던 10월, 두 차례의 사행이 있었는데 이성의 『연행일기』는 그 해 연행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매현의 『연행일기』가 쓰여진 당시는 병자호란(1636년~1637년)이 있는 지 10년 쯤 된 때로, 포로로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청나라 초기의 혼란했던 상황이 조선인의 눈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일행이 죽음으로써,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과 동지를 잃은 작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성의 『연행일기』는 문중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3년에 발견되었고, 2005년에 영광문화원에서 간행하였다.³⁾ 이성의 『연행일기』에 대한 연구는 영광문화원에서 간행할 때 붙인 김대현의 해제가 전부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매현 『연행일기』에 대한 처음 단계의 연구로 개괄적인 고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현 이성이 어떤 사람이며, 그의 일기가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살핌으로써 이성 『연행일기』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매현 이성의 생애와 연행 일정, 『연행일기』의 창작 의도 등을 간략하게 살피고, 3장에서 작

2) ‘연행일기’는 장르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작품 고유의 명칭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이성의 작품 고유의 명칭으로 사용하므로 책 표시(『 』)를 하도록 하겠다.

3) 이성 저/김대현 외 역, 『연행일기·매현유고』, 영광문화원, 2005.

품의 내용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II. 매헌 이성과 『연행일기』

매헌의 『연행일기』를 보기 전에 저자인 李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성(1594~1653)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자는 華封이고 호는 梅軒이며 본관은 全州이다. 아버지 愚軒 李克扶와 어머니 帶方 梁氏 사이에서 1594년에 태어났다. 아버지에게서 가학을 전수받았고, 18세 때 향시에 합격하였다. 1623년 6월과 8월에 부친상과 모친상을 연이어 치르고, 이후 과거공부를 폐하였다가 1635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그 해에 승문원 교리가 되었고 이후 연서찰방·병조좌랑·병조정랑·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다가 1648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冬差賀正使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청도군수가 되었다가 화재의 책임을 물어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와 살다가 1653년에 세상을 떠났다. 연행을 다녀온 지 5년 후의 일이다. 저서로는 시와 책문이 실린 『梅軒遺稿』와 『연행일기』가 있다. 이성은 문인으로서나 관인으로서나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연행을 생생하게 서술한 이 『연행일기』⁴⁾를 남김으로써 일반 문인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연행일기』는 1648년(인조 26년) 10월 25일부터 1649년(인조 27

4) 현전하는 『연행일기』는 미간행 필사본 1책이다. 행서와 초서가 섞여 흘림체로 쓰여 있으며, 작자가 자유스럽게 덧붙이고 지운 흔적이 많다. 책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장자리가 마멸되어서 결락된 글자가 많으며, 현재 전주 이씨 매헌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 영광문화원에서 『매헌유고』와 함께 국역하여 간행하면서 원본을 사진으로 영인하여 쉽게 원전을 확인할 수 있다. 1871년 간행된 『매헌유고』는 전남대학교 고희서실에 소장되어 있다.

년) 2월 21일까지의 연행의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다. 청의 황제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한 이 연행의 일정을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연행 경과
1648년 10월 25일~1648년 11월 19일 (24일간)	· 한양 출발 · 압록강 건넌
1648년 11월 20일~1648년 12월 21일 (32일간)	· 청나라 입성 · 북경 도착
1648년 12월 22일~1649년 1월 10일 (18일간)	· 하례 준비, 입궐, 부사의 죽음
1649년 1월 11일~1649년 2월 7일 (37일간)	· 북경 출발 · 의주 도착
1649년 2월 8일~1648년 2월 21일 (14일간)	· 의주 출발 · 모화관 도착, 복명

총 125일 간 연행을 하였으며, 遼東에서 鞍山, 牛庄, 沙嶺, 高平, 盤山, 閭陽驛에 이르는 남로를 택하고 있다.

연행사의 구성을 보면 吳竣을 正使로, 金霽를 부사로 하였으며, 이성은 연행 중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귀국 후 왕에게 건문한 바를 보고해야 하는 書狀官으로 연행에 참여하였다.⁵⁾ 이성은 서장관으로 연행의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연행일기』는 훗날 공적으로 보고할 내용의 기초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일기 속에는 연행경로, 연행행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공적 기록의 바탕이 되기는 하나 작품 자체는 이성

5) 이 중 김훤은 연행 중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북경에 머무르던 중인 1월 5일에 세상을 떠난다.

의 사적인 기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도 서술하여 작자의 체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⁶⁾

이성이 서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또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글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기를 썼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일기를 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를 일기 본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① 상사의 생일이 마침 오늘이어서, 부사가 상사에게 말하기를 “듣자 하니 오늘이 대감의 생신이라는데 이 객지에서 어떠하십니까?”라고 묻자 상사가 “왕의 일을 힘써 행하는데 감히 생일을 말하겠소?”라고 답했다. 부사가 “술을 마셔 적막함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몇 순배를 돌리고 파했다. 만 리 길에 고생을 함께 함이 골육보다 친하여 후일 한양에서 가장 남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무릇 우리 세 사

- 6) 작자는 생일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12월 22일), 수레 위의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한 일행들의 농담(11월 26일), 창녀를 두고 장인과 사위가 견제하는 것을 보고 웃은 일(12월 16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適會今日是余生辰. 平昔在家, 開樽一床, 孺人執盃, 稚子傳餐, 諸姪唱歌, 老兄起舞, 歡笑終夕. 萬里殊方, 此日中回想得妻孥老兄, 北望隕涕, 心緒搖搖然, 自不堪如懸旌也. - 『燕行日記』, 12月 22日.

歷滴水寺, 未及狼子山一里, 路左車上, 有一美妹, 年可二十, 首□□色, 粲爛鮮明, 困眼忽開, 依然若群玉山頭也. 暮低狼子山, 止宿. 三人鼎坐, 副使顧我而笑曰, “獨不見夫車上坐女乎. 足以悅目.” 余答曰, “所見同也.” 上使曰, “深坐駕橋, 倏然經過, 恨未見也.” 因成客中一大噓. 此亦萬里同苦, 消遣無聊也. - 『燕行日記』, 11月 26日.

此站本有養漢的, 年少裨將, 譯官輩四五人 入其室遊戲之際, 其中有朴初有烝稱名者, 以善唱鳴於同僚, 余之帶行裨將金大榮, 卽朴有烝之聘父也. 突入其中, 慍于色曰: “此路娼家側, 有瘡病, 何不謹至於乃爾.” 一座皆笑而退. 大榮之言, 雖或近理, 翁婿之間, 不無妬忌也. 余與副使, 朝飯同坐之時, 有人來傳此言, 聞來不覺大噓. - 『燕行日記』, 12月 16日.

람의 자손이 이 기록을 보고 어찌 슬픈 마음이 없겠는가?)

② 객중의 고생으로 비록 생일을 맞았으나 조금도 흥이 없었는데, 비밀로 하여 말을 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일기를 쓰는 관리가 누설하여 상사와 부사가 듣고는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 전혀 듣지를 못했으니 우리들을 친애하지 않아서인가?”라고 말하고는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준비하였는데, 모두 중국 물건이었다. …(중략)… 이것이 이른바 만 리에 고생을 같이하여 골육보다 친해진 것이다. 내 자손들이 이 일기를 보고, 반드시 세세토록 서로 친하여 형제와 같은 의가 있어야 한다.⁸⁾

①은 상사의 생일에, ②는 본인의 생일 다음날에 뒤 늦은 생일잔치를 하고 쓴 기록의 일부이다. 각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릇 우리 세 사람의 자손이 이 기록을 보고 어찌 슬픈 마음이 없겠는가’, ‘내 자손들이 이 일기를 보고, 반드시 세세토록 서로 친하여 형제와 같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글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일기를 후손들이 보고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과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잊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곧 이 일기는 본인만의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읽혀서 선조가 경험한 일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읽고서 고락을 함께한 정사·부사의 후손들과, 자신들과 같이 의를 가지고 지내기를 바란 것이다.

-
- 7) 上使生辰, 適當此日. 副使謂上使曰, “竊聞今日大監生日, 如此客裡何” 上使曰, “王事鞅掌, 敢言生日乎” 副使曰, “不可不破寂酌”, 行酒數盃而罷. 可謂萬里同苦, 親於骨肉. 而他日洛城, 爲第一頭說話也. 凡我三人子孫, 觀此記者, 豈無悲感之心乎. - 『燕行日記』, 11月 23日.
- 8) 客裏艱苦, 雖當生日, 少無興況, 秘不發言. 因日記寫字官漏泄, 上·副使聞之, 送言曰, “生日已過, 全不聞之, 不親愛吾等而然耶” 仍盛備酒饌, 而皆是唐物. …(중략)… 此所謂, 萬里同苦, 親於骨肉者也. 凡我子孫, 觀此日記, 必世世相親, 而有同兄弟之義也. - 『燕行日記』, 12月 23日.

그렇다면 이성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후손들이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일까? 『연행일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매헌 『연행일기』의 내용적 특징

일기는 작자의 경험이 담겨 있는 글이다. 이 중 연행의 상황을 일기로 기록한 작품은 일상 일기와 달리 시작과 끝을 지닌 하나의 완결된 형태 속에, 중국 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담고 있다. 더구나 이성은 병자호란 후, 南明政權과 반란세력으로 청나라가 혼란했던 시대에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경험하였다. 때문에 이성의 『연행일기』 속에는 당시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다. 이는 시와 같은 서정적인 문학 장르나, 공적인 역사 기록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연행의 과정에서 쓴 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성의 『연행일기』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는다. 하나는 청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세를 담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자호란 당시나 그 후에 중국에 끌려 간 포로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또 역사적 상황과 별도로 부사가 죽음을 맞이하여 상을 치르고 운구하는 과정을 담음으로써 이 『연행일기』는 당대의 모습을 경험자의 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청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세 제시

중국을 이동하던 중에 쓴 연행록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연행 당시 중국의 정세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성의 『연행일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퇴락한 성, 반란 세력 등의 기록

이 있어 청나라 초기 피폐화 되고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정세를 읽어 낼 수가 있다. 이성이 당시 중국의 정세를 표현하는 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동하는 중에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성과 일행은 북경으로 이동하고, 북경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지역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퇴락한 성, 이동하는 백성 등을 제삼자적 입장에서 보게 되고, 작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① 새벽에 출발해 平安橋 봉화대 아래에서 아침을 먹었다. 수백 보 떨어진 곳에 빈 성이 있는데, 성안에는 백골이 흩어져 있고 성밖에도 인가가 없었다. 아마도 명대에 건축해서 지금은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에 고평현에 도착했다. 인적이 쓸쓸해 성안의 주민은 겨우 30여 가구 뿐이다.⁹⁾

② 말을 쉴 겨를도 없이 곧바로 盤山에 이르러 잤다. 이 참은 성벽은 있으나 아직 수리하지 않았고 또한 지키는 장수도 없었다. 성안의 주민은 겨우 수십 명인데 집도 누추해 역지로 하룻밤을 지낼 정도였으니, 힘든 모습을 형언 할 수 없었다.¹⁰⁾

③ 이동하는 수레와 말이 도로에 가득했는데 모두 북경으로 향해가고 있다. 길에서 본 군병들은 기병, 보병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가고 있었다. 이날 저녁에 주인에게 물으니, 宣府·大同의 지원병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永平府에서 천 명을 징발하고, 山海關

9) 平明發行，朝飯于平安橋烟臺下。去數百步，有空城，城內但有白骨，城外又無人家。蓋明朝所設，而今不修築故也。暮抵高平縣宿。縣即明朝遊擊所鎮，而城堞不修。人烟蕭瑟，城中居民，僅三十餘家。－『燕行日記』，12月3日。

10) 無暇歇馬，直抵盤山宿。此站亦有城堞，而既不修築，又無守將。城中居民，僅數十名，閭舍隘陋，僅得經宿，艱苦之狀，不可形言。－『燕行日記』，12月4日。

에서 또 천 명을 징발하여, 밤을 틈타 몰래 선부·대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¹¹⁾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백골이 흩어져 있는 빈 성, 겨우 수십 명의 주민이 지키는 초라한 성, 계속되는 전쟁 등 중국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7일 등 많은 날의 일기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어, 한 두 지역만의 일이 아님도 알 수 있다.

둘째, 작자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중국의 정세를 물어서 파악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조선인에게 중국의 정세를 알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성은 서장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성은 중국에서 만난 조선인 포로, 머무르는 숙소의 주인, 관리 등에게 반란군 등 중국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묻거나,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기록한다.

① 여러 사정을 물으니, 남쪽으로 들어간 군대가 얻은 것이 있으나 얻으면 곧바로 잃어 아직 다 평정하지 못했고, 李自誠 군대는 좁은 데에 웅거하여 견고하게 있어서, □□ 출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북경 근처에는 남은 무리들이 봉기하는 곳이 있으나,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¹²⁾

② 행차가 通州에 도달했을 때 西獐이 침입해서 宣府·大同을 점거

-
- 11) 路見軍兵, 騎步陸續不絕. 是夕問于主人, 則宣府·大同援兵, 入去云云. 又言, 永平府調發千人, 山海關又調發千人, 乘夜密向宣府·大同云云. -『燕行日記』, 1月 19日.
- 12) 因問事情, 則入南之軍, 雖有所得, 旋得捉失, 未盡平定, 李自誠軍居陝爲固, □□生, 出沒無焉. 且北京近處, 零賊蜂起, 雖或誅殺, 未能禁戢. -『燕行日記』, 12月 7日.

해서 九王이 출정하자 멀리서 바라보고 달아났다는 말을 들었다. 선부·대동은 북경에서 700여리 떨어져 있다. 북경 숙소에 들어 온 후에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 관에 있는 사람의 말 중에 명조의 총병 강선이 서달을 유인하여 바야흐로 두 곳에 웅거하고 있고, 팔왕이 군사를 이끌고 주위를 두르고 있으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북경으로부터 군병을 정비하여 금명간에 출병하여 계속하여 도우려 한다고 한다. 서달은 몽고의 일종으로 청인들이 매우 꺼린다. 딸을 시집보내 결혼을 하여 억지로 강화를 맺었지만, 숙였다가도 드세게 되니 반드시 후일의 근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¹³⁾

③ 궁궐에서 돌아올 때에, 길 가의 큰 저택이 수백보가 넘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대통관에게 묻고 또 탐문해보니, 집 주인은 명조의 이름난 관리로, 성은 유씨이다. 집안이 대대로 부유해서 장안에서 첫째였다. 신하로서 청나라를 섬겨 제법 총애를 얻었으나, 겉으로는 친근함과 신뢰를 보이고 안으로는 음모를 꾸며, 저택을 크게 지어 득의함을 자랑하고, 무리들을 모아들어 안과 밖에서 서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집안의 재산을 다 풀어 몰래 명기를 갖추어, 재상의 상여라고 칭탁하여 밤을 타서 실어낸 것이 비밀비재했다. 작년 7월에 그 중에 고변한 자가 있어, 청인들이 그 상여가 북경을 나가기를 기다려 살펴보았더니, 상여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모두 갑옷과 투구 같은 것들이었다. 국문을 당함에 조금도 숨김이 없었고, 형을 집행함에도 안색을 변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임금을 위했으니, 나의 죽음이 어찌 애석하랴.’라고 했다. 사형에 처한 후에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로부터 한인을 홀대하고, 王家에 의탁한 자 외에는 모두 성 밖으로 쫓아내고, 말을 타지 못하게 하고 다만 나귀를 지급했다.¹⁴⁾

13) 行到通州, 文西撻入據宣府·大同, 九王出征, 望風奔潰云云. 宣府·大同, 距北京七百餘里矣. 入館後, 更詳聞見, 則館夫言內, 明朝總兵江宣, 誘引西撻, 方據兩處, 八王領軍圍住, 未決勝敗. 自北京整齊軍兵, 今明出送繼援云云. 西撻蒙古之一種, 清人所深忌也. 嫁女結婚, 務爲講和, 而屈強反覆, 必爲後日患云. - 『燕行日記』, 12月 24日.

위와 같은 기록을 보면 반란세력 등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청나라 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①, ②의 기록에서는 이성이 연행하는 그 시점에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③의 기록에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개인의 인적사항과 반란계획이 들키고 죽기까지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역사서로는 알기 힘든 구체적인 사실이다. 이성은 본인이 직접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들은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작자의 직접 경험을 넘어선 부분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고통을 당하는 중국인을 직접 만난 경험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한 차례 밖에 보이지 않지만, 당시 중국인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하나의 일화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獲望鋪에서 아침을 먹었다. 주인이 검은 곳을 입었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모친의 상을 당하여 입었는데, 백일이 지나 마땅히 평상복으로 입어야 하나 궁핍하여 옷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검은 옷으로 입고 있다’고 하였다. 또 물기를 ‘당신의 용모와 사는 곳을 보니 부모상의 검은 옷을 입을 만큼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명나라 때의 세금은 한 이랑에 백금 1푼 2리였는

14) 自關門來時，見路邊甲第，連延數百步外。問于大通官，又窺探問，則家主明朝名官劉姓人也。家世豪富，甲于長安。臣事清朝，頗得近幸，而外視親信，內懷陰謀，大治第宅，以誇得意，締結同黨，內外相應。散盡家財，密備兵器，托稱宰相喪柩，乘夜載出，非止一再。上年七月，有自中告變者，清人俟其喪柩之出圻，而視之則柩中所貯，皆是甲冑等物也。鞫問少無隱諱，臨刑亦不動色曰，“吾爲吾君，吾死何惜”云云。正刑之後，其家舍籍沒屬公云。自此外待漢人，托於詣王家外，其餘盡數，驅出外城，使不得乘馬，只給駟騾 - 『燕行日記』, 1月 1日.

데 지금은 5푼이다. 이 때문에 밭과 집은 남에게 주고 함께 먹으니 어찌 궁핍하지 않겠는가?’하였다. 그 표정을 보니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¹⁵⁾

평상복이 없어서 모친상이 끝난 후에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중국인에 대한 서술이다.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명나라 때의 세금은 한 이랑에 백금 1푼 2리였는데 지금은 5푼이다. 이 때문에 밭과 집은 남에게 주고 함께 먹으니 어찌 궁핍하지 않겠는가?’라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 가난의 원인이 청나라 정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 당시 현실 속을 살고 있는 중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면서, ‘그 표정을 보니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다’라는 작자의 평가도 넣어 역사적 사건 속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렇게 온통 폐허가 된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전란 가운데도 변화한 거리,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 곳도 표현되었다. 이성은 화려한 중국의 문물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 기록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은 일기 전체를 들어 세 번 기록한 것¹⁶⁾이 전부이다. 이는 그 큰 중국이 얼마나 피폐한 상태였는지를 더 잘 느

15) 朝飯于獲望鋪。主人帛黑衣，問其故，丁其母喪，已經百日，宜緣窘乏，未備表服，尚着黑衣云云。又問“觀汝形貌，見汝家舍，不以窘乏，天喪黑服者也。”泫然長嘆曰，“明朝收稅一畝，金白一分二里，今則五分。以此田庄，給人并食，安得不窘乏乎。”觀其情色，不無戀舊之懷也。－『燕行日記』，12月 14日。

16) 關內居民，兵火之餘，縱未完全樓閣，俠道車馬連續，洒舍旗亭，猶有繁華舊習，認得太平全盛之時，豪華富庶，豈但什倍而止哉。－『燕行日記』，12月 12日。雖經兵火之餘，物力尚且殷盛，與永平可相雌雄。城中有獨樂寺，三層閣裡，立金像佛。高數十丈，大數十圍，五彩盈身，金紫照曜。四面風鈴，自然成響，若出金石，如有律呂，真絕代奇觀也。－『燕行日記』，12月 18日。臺隍之壯，器械之雄，甲于關內，此壯觀內。畫閣朱門，左右狹道，洒肆青帘，連綿接隊，車轂駢闐，磨戛如雷，生齒繁息，連袵成帷，此壯觀也。男兒觀覽，到此富矣。－『燕行日記』，12月 20日。

끼게 해 준다. 또한 변화함을 서술하면서도 병화의 뒤끝이라 예전과는 다름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듯 이성의 『연행일기』는 청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그 때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일기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 병자호란 후 포로의 상황 서술

이성은 조선의 관리로서, 연행 중에도 조선 사람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이는 조선인에 대한 반가움·친근감 보다는 포로로 끌려 온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기록 속에 병자호란 후 청과의 관계와 조선인의 고난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먼저 이성은 한양을 떠나 중국에 들어서기 전, 국경 근처 마을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간략히 표현한다.

① 安州에서 잤다. 이 읍은 큰 □□□□□□□□ 그 남쪽에는 커다란 평야가 있는데, 그 전에 본 □□□□□□□□은 황해도와 평안도를 지키는 중요한 곳이 되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는 담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몹시 혼란하였을 때는 성곽의 백성들이 꿈쩍없이 전쟁 속에 죽어갔으니, 옛적의 현인이 이른바 ‘地利가 人和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실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 나는 이 읍을 지나면서 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머물렀다. 성은 천 길의 높이요, 지세는 물이 두르는 형승이다. 한스러운 것은 훌륭한 장수를 얻지 못하고, 藺相如와 같은 여진 원이 이 성을 지키고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¹⁷⁾

17) 宿安州. 是邑大□□□□□□□□ 其南大野在其前, 見之 □□□□□□□□ 爲西路要害之處. 足爲國門屏□□□□捨攘之除. 城郭人民, 居然爲烟火魚肉, 昔賢所謂 ‘地利不如人和’, 良不誣也. 余經此邑, 騁目停心. 其城則千仞高也, 地勢則上流形勝. 恨不得猿臂良將, 藺綠仁倅, 守此城理此土也. -『燕行日記』,

② 定州에서 잤다. 예전에 이 곳의 변화함이 안주와 다툼다고 들었는데 성곽과 강산이 들은 것보다 못하다. 아! 병화를 당한 후에 복구하지 못해 그런 듯하다.¹⁸⁾

①은 11월 8일, ②는 11월 11일의 기록으로 아직 압록강을 넘지 않고 조선의 안주와 정주에서 기록한 것이다. ①에서 이성은 ‘이 읍을 지나면서 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머물렀다’는 애정이 담긴 표현을 한다. 이는 그 지역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훌륭한 장수, 전국시대 조나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인상여와 같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다. 이성은 이와 같이 전란 후 황폐한 안주를 보고 마음아파하고, ②에서는 한 때는 변화했으나 병화를 당한 정주를 보고 탄식을 내뿜는다. 이렇듯 작자의 탄식 속에서 병자호란 후 퇴락한 조선의 국경을 볼 수 있다.

이후 청나라에 들어가 북경을 향하면서 작자와 일행은 여러 차례 병자호란 때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은 조선인을 만난다는 반가움에 사신들을 찾아오고, 중국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한다.

이성은 조선인 포로가 찾아와 해 준 이야기를 특별한 감정 표현 없이 서술하기도 하고,¹⁹⁾ 또 아래의 예문과 같이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

11月 8日.

18) 宿定州。昔聞此州繁華，與安相類，而城郭江山，詘於所聞，吁亦兵火之餘，未能復舊而然也。 - 『燕行日記』, 11月 11日.

19) 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사람이 전해준 말이다.(此乃我國披擄人所傳也。) - 『燕行日記』, 12月 2日.

그는 호광 사람으로, 역시 포로가 되어 왔는데 나이는 16,7세 정도였다. 영리하기가 비할 데 없었으며, 자칭 호광땅의 수재라고 했다.(其家內，湖廣人，亦披擄而來，年可十六七歲，伶俐無此，自稱湖廣地秀才。) - 『燕行日記』,

과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간략히 서술하기도 한다.

① 아침 늦게 촌 노파 한 명이 와서 절을 하였다. 행색과 말하는 모습이 근심이 가득하여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였다. 어떠한 사람인가 물으니, 답하기를 ‘新門 밖의 강승지의 노비로서 병자호란 때 잡혀서 이곳으로 왔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기에 약과 과일 등을 주면서 사정을 물으니, 답하기를 ‘남쪽으로 들어간 군인들은 물과 풍도가 달라서 □ 병을 얻어 태반이 죽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孔·勁·尙 세 사람이 □□한 바, 내년 봄에는 세 사람이 모두 운수를 다할 것이니, 이끌고 가서 남방 □□□ 살 만한 곳에 이거하게 하고, 西獐에게 이 땅에 살게 했다’고 한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나온 말 같았지만, □□ 그의 들은 곳을 알지 못하여, 실상을 알 수는 없었다.²⁰⁾

② 저녁에 숙직하는 자가 만나길 청하는데 우리말을 할 줄 알아 물었더니, 좌의정 백헌 이경석과 같은 성으로 육촌 손자라고 한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대영이고, 그의 아명은 봉명으로 나이는 19세였다. 사로잡혀 이곳에 와서 황제 장원의 관리인이 되었다고 한다. 만나 보니 불쌍하여 음식을 먹이고 또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남방의 사정을 물었더니, 풍토병으로 군병들이 죽은 자가 많으나,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는 곳이 많다고 하였다.²¹⁾

2月 1日.

- 20) 朝晚, 有一村婆來拜. 形容辭氣悒悒然, 似有含情未吐. 問其何許人, 則答言以新門外姜承旨婢子, 丙子被擄來此云. 繼而流涕, 饋藥果等物, 仍問事情, 則答言入南之軍, 水土異□得病, 物故太半云云. 又言孔·勁·尙三人所管□□民, 明春爲始, 三人盡數, 率去移居南方□□□得之處, 令西獐換處此地云云. 此言似出於情, □□未知渠之所聞, 未得其實也. - 『燕行日記』, 11月 28日.
- 21) 臨夕直漢請見, 能解我國言語, 問之則左相白軒同姓六寸孫也. 其父名則大英, 渠之兒名則鳳鳴, 行年十九, 披擄來此, 爲皇帝庄頭云云. 所見矜惻, 饋以行饈, 又給紙束. 因問南方事情, 則以水土之病, 軍兵多有物故, 然戰則必勝, 所護亦多云云. - 『燕行日記』, 12月 10日.

이러한 기록만으로도 당시 포로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으며 이들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아래의 12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단순한 현실기록 뿐 아니라 포로들의 고통스런 마음과 한까지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생생한 심경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자가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서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의관 김주성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온 견마잡이는 한양 전승귀의 아들인데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다. 그 부모가 포로가 되어 북경에 살고 있었다. 사신이 동악묘에서 옷을 바꿔 입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술과 음식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였다. 아들은 부모의 옷을 잡고, 부모는 자식의 손을 잡아당기며 통곡하는 모습이 비록 원한을 가진 적이라도 마음이 어지러울 것이었다. 관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일행의 숫자를 몸소 점검하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 물었더니 바로 어제 부자간에 울었던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법으로 논하면 조금도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실정이 가련해 상사와 부사 이하 모든 사람들이 용서해주자고 하였다. 다만 김주성에게 벌을 줄 따름이었고, 그 아이는 너그럽게 불러 들였다.²²⁾

부모는 포로로 북경에 있어 고아나 다름없는 7살 아이가, 어른도 견디기 힘든 연행길을 따라와 부모와 만나는 장면이 애처롭게 묘사되어 있다. 아들은 부모의 옷을 잡고, 부모는 자식의 손을 잡아당기며

22) 醫官金奏聖, 私持馬從人, 乃京中田承貴子也. 年纔七歲, 其父母披擄, 居在北京. 三行東嶽廟, 更衣之時, 聞其子來, 持酒食出迎子, 牽父母之衣, 父母執子之手, 攀號哭泣之狀, 雖其怨敵, 方寸亂矣. 到關, 翌朝, 一行人馬, 親自檢閱, 則元數中, 一人有干. 問之, 則乃昨日, 父子相哭者, 未及入來. 論以國法, 小不容貸, 而其情則戚矣. 上副使以下, 皆用寬恕, 只施罰於金奏聖已而, 厥漢從權招入. -『燕行日記』, 12月 22日.

울부짖는 장면은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렇듯 청나라에 포로가 몇 명이라는 식의 객관적인 기록이 아닌 직접 경험한 이의 기록은,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감정까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한다.

3. 喪을 치르는 과정 서술

연행노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연행 날짜에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연일 달리고 바람과 모래에 시달려 숙환이 재발해 온몸이 편치 못하나 절일이 임박해 하루도 쉴 수 없으니, 이것은 일정에 쫓기는 때문이다.’²³⁾와 같이 병든 몸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기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다 보니 연행 중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매헌의 『연행일기』에서도 부사, 부사의 역졸이 연행 중 죽음을 맞이하고, 병이 심한 수행원은 남겨두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²⁴⁾ 그런데 신분이 낮은 수행원들의 죽음은 ‘죽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기록된 데 반해, 연행의 중요한 일원인 부사의 죽음은 그 장례의 절차와 운구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당시 사신이 죽었을 때의 중국과의 조율과정 및 장례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

23) 連日驅馳, 苦涉風沙, 宿疾復發, 四體不仁, 以節日臨迫, 未得一日留息, 此所謂嚴程有限也. - 『燕行日記』, 1月 9日.

24) 부사의 죽음은 1월 5일의 기록에, 부사 역졸의 죽음은 2월 1일의 기록에 실려 있고, 병이 있는 수행원을 두고 이동하는 것은 2월 3일의 기록에 실려 있다.

부사의 죽음과 관련한 기록은 다음 표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나온다.

날 짜	내 용
1월 1일	· 부사의 병증이 위독함
1월 5일	· 부사가 세상을 떠남
1월 6일	· 염습을 하고 관을 구하러 다님
1월 7일	· 입관함 · 상여 옮길 것을 도와주길 청함
1월 8일	· 관을 옮기는 일에 대한 예부의 허락을 받음
1월 9일	· 부사의 喪을 致奠(사람이 죽었을 때에, 친척이나 벗이 슬퍼하는 뜻을 나타냄. 또는 그런 제식)함
1월 11일	· 부사의 喪柩가 서대문을 통해 나옴
2월 6일	· 부사의 상구가 국경에 이름
2월 8일	· 부사의 상구가 성 밖에 있으나 찾아가지 못함
2월 13일	· 길에서 부사의 아들이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봄

1월 6일의 기록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후 관을 구하러 다니나 좋은 관을 구하지 못하는 과정, 관을 옮기는 것을 중국의 관료와 상의하고 허락을 받는 과정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부사의 喪과 관련된 기록 중 1월 9일과 2월 6일자에 실린 기록이다.

① 새벽에 대통관이 전하기를 예부로부터 부사의 喪을 致奠한다고 한다. 예절에 맞는 모습을 물으니, 황제가 친히 조의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사신 이하 원역 등이 冠帶를 갖추어 조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른 아침에 有司가 와서 문 밖 喪柩 근처에 머물러서, 뜰 앞 북쪽에 신위를 세우고 진설하였다. 장막이 먼저 왔고, 악공이 뒤를 따라서 차례로 베풀어지고, 제관 두 사람과 讀祝官이 차례로 섰다.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자, 사신·서장관·원역 등이 꿇어앉아 곡을 하여 슬픔을 나타낸 다음, 북쪽을 향하여 세 번 절하였다. 황은에 감사하는 예를

마치고, 제관이 돌아갔다. 사신들이 떠나보내는 예를 법식으로 하였다. 그 제관의 우두머리는 文進士로 禮部提督官인 鍾性璞이다. 그 다음은 요동이 함락될 때에 포로가 된 張鎮國이며, 讀祝官은 光祿寺의 관리인 包良祚로 역시 漢人이다. 위엄 있는 거동을 성하게 베풀어, 그 진실함과 정성스러움을 보인 것은 모두 攝政王의 지휘에서 나왔다고 하였다.²⁵⁾

② 부사의 상구를 멘 군인이 북경에서는 鳳凰城까지만 운구하기로 하였다. 봉황성에 이르니 성의 장수가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며 다시 中江까지 운구하라고 하였다. 대개 저 사람들이 우리 국경에 이르면, 의주로 부터 헛된 낭비가 많이 있어서 護喪하는 군인들을 불러서, “喪柩를 메고 갈 군인이 의주로부터 이미 이르렀는데 上國의 사람들이 우리의 국경에 이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황제의 명령이 있는데,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꺼려하겠는가? 마땅히 中江까지 메고 가겠다.”고 하였다. 말하는 바가 이치에 맞으므로 마침내 물리치지 못하여, 저들이 국경에 이르렀다.²⁶⁾

①에서는 중국에서 致奠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②에서는 운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조율이 나타나 있다. ①을 통해 당시 치전의 예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신이 중국에서 사

- 25) 凌晨, 大通官傳言, 自禮部致奠於副使之喪云. 問禮貌, 則一如皇帝親吊之儀, 使臣以下員役等, 不可不具冠帶應吊云云. 早朝有司來, 住門外喪柩近處, 庭前北邊, 設位陳設. 莫蓋先來, 樂工從後, 以次張示, 祭官二人及讀祝官, 列立有序. 進爵讀祝, 使臣·書狀官·員役等, 跪哭盡哀, 後北向三拜. 以謝皇恩, 禮畢, 祭官退去. 使臣等拜送之禮如儀. 其祭官首, 則文進士, 禮部提督官鍾性璞也. 次則遼東陷時, 彼擄漢人張姓鎮國, 讀祝官則光祿寺官包良祚, 不漢人也. 盛陳威儀, 示其誠虔, 皆出於攝政王指揮云云. - 『燕行日記』, 1月 9日.
- 26) 副使喪柩擔軍, 在北京時, 限鳳凰城題給. 而到鳳城, 則城將謂, 有皇帝宣旨, 更限中江擔送. 大概彼人來到我境則, 自義州多有虛費之事, 故招護喪馬牌言, “擔持軍人, 自義州發送已到, 何必勞上國之人至于家境乎.” 答曰, “既有皇帝之命, 何敢憚勞, 當以中江爲限擔去”云. 所言順理, 終未能却, 彼人到境. - 『燕行日記』, 2月 6日.

망을 하였을 때, 어떻게 상례를 치르는지를 볼 수 있다. ②는 상구를 운반하는 과정과 관련한 기록이다. 중국의 군인들이 상구를 운반해 주되, 만주의 봉황성까지만 운구하기로 했다가 다시 조선 국경 지역의 中江까지 운반하기로 한 과정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군인이 조선의 국경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저자의 마음과 함께 당시 운구 절차를 볼 수 가 있다.

부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행에서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 이렇게 사신이 죽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성 『연행일기』에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례를 치르는지를 경험자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담고 있어, 당시의 의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이성의 『연행일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1648년에 있었던 연행에 대한 현전하는 유일한 기록인 이 『연행일기』는 이성의 사적인 기록이기에 더욱 생생하게 연행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연행 과정 속에서 청나라 초기 혼란한 정세와 병자호란 후의 포로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연행 중 세상을 떠난 부사의 장례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경험자의 눈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연행일기』가 담고 있는 것 중 중요한 내용만을 정리한 것으로 깊이 있는 분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연행일기』가 쓰여진 당시는 명·청이 교체했던 시기로, 이성의 『연행일기』 연구에 있어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사대부가 청을 어떻

게 보고 있는지 의식을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다른 연행록과 비교·대조하여 연구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 연행에서 지은 한시와 함께 연구하여 『연행일기』와 한시가 담고 있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현재는 개괄적인 고찰에 그치지만, 앞으로 『연행일기』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 성, 『燕行日記』
이 성, 『梅軒遺稿』
이 성 저/김대현 외 역, 『연행일기·매헌유고』, 영광문화원, 2005.
김아리, 「‘노가재연행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장덕순, 『韓國隨筆文學史』, 박이정, 1995.
정구복, 「朝鮮朝 日記의 資料的 性格」, 『정신문화연구』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정하영, 「朝鮮朝 ‘日記’類 資料의 文學史的 意義」, 『정신문화연구』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최강현 엮음, 『韓國 紀行文學 作品 研究』, 국학자료원, 1996.
최강현, 「한국 기행 문학 소고」, 『어문논집』19, 안암어문학회, 1977.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이동진·윤미경 역,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2.

이 논문은 2009년 8월 11일에 투고되어 2009년 8월 15일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09년 8월 2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매헌 이성의 ‘연행일기’ 고찰

김 미 선

일기는 작자의 경험이 담겨 있는 글이다. 이 중 연행의 상황을 일기로 기록한 작품은 일상 일기와 달리 시작과 끝을 지닌 하나의 완결된 형태 속에, 중국 여행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담고 있다. 매헌 이성(1594년~1653년)의 『연행일기』는 일기체로 기록된 연행록으로, 1648년 10월 연행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매헌의 『연행일기』가 쓰여진 당시는 병자호란이 있는 지 10년 쯤 된 때로, 포로로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청나라 초기의 혼란했던 상황이 조선인의 눈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일행이 죽음으로써,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과 동지를 잃은 작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논문은 매헌 『연행일기』에 대한 처음 단계의 연구로 개괄적인 고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매헌 이성이 어떤 사람이며, 그의 일기가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살핌으로써 이성 『연행일기』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매헌 이성의 생애와 연행 일정, 『연행일기』의 창작 의도 등을 간략하게 살폈고, 3장에서 작품의 내용적 특징을 청나라 초기의 혼란한 정세 제시, 병자호란 후 포로의 상황 서술, 喪을 치르는 과정 서술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주제어: 매헌 이성, 연행일기, 연행록, 병자호란, 중국 여행

<Abstract>

The foundation of the study for Lee sung's 『Yeonhaengilgi』

Kim, Mi-sun

A diary is what incorporates a writer's experiences. Unlike common diaries, the literary work, the record of Lee Sung's travel illustrates the special experience, a trip to china in a complete form joining beginning and ends together. 『Yeonhaengilgi』 written in diary stroke by Maehyun Lee Sung (1594~1653) is a unique document for the journey in October 1648. At the time when 『Yeonhaengilgi』 was written, it had around 10 years passed since Manchu war of 1636 was occurred. 『Yeonhaengilgi』 by Maehyun Lee Sung describes the status of people forced to be sent to Chung and the confused society of early Chung period through the Joesun people's sight. It also well shows writer's loss of comrade in the process of holding a funeral and carrying the coffin to his home country.

This thesis is the first step of a study for 『Yeonhaengilgi』 by Maehyun aiming at general inquiry. Through this thesis, therefore, I try to lay the foundation of the study for Lee sung's 『Yeonhaengilgi』 and it can be understood who Maehyun is and what distinctive feature is shown over. First, at the second chapter of the thesis, I generalizes Maehyun Lee Sung's life, the schedule of his trip and intention of his work. For the third chapter, the peculiarity of

『Yeonhaengilgi』 is described as the status of people forced to be sent to Chung, the confused society of early chung period and the process of funeral rites are stated according to three part of statement.

key words: Maehyun Lee Sung, Yeonhaengilgi, Yeonhaengrok, Manchu war of 1636, A trip to china